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정민하 울리오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의 길

교회는 매년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이달에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 사업을 묵상하며, 가정과 교회,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히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시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 묵주기도를 '복음의 요약'이라 부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에게 묵주기도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제가 야간 자율학습과 독서실에서 돌아오는 늦은 밤까지 주무시지 않고 거실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들리던 묵주 알 굴러가는 소리, 조용히 이어지는 기도 소리... 그 모습이 반항하던 제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머니의 묵주기도가 저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손길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묵주기도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중재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 하시듯이, 우리도 묵주기도로 누군가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 한 알 한 알 정성껏 기도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묵주기도는 네 가지 신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게 합니다.
- 고통의 신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수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할 용기를 얻게 합니다.
-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묵상하며 우리 삶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게 합니다.
- 영광의 신비는 부활하신 주님과 성모님의 하늘 영광을 묵상하며 우리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신비를 따라 묵주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정사목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 사연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죄의 무게와 상처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바쳐지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이번 10월, 교정사목에 함께하는 우리가 모두 묵주기도를 통해 죄인들의 회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랬듯이, 우리도 하느님 앞에 그들을 품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작은 한 단, 한 단의 묵주기도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위로와 희망의 길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회개의 은총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3차 이사회



8월 29일(금) 교정사목센터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3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들과 2025년 예산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8월 15일 선종하신 이사장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9월 1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승민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라며,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 덕분에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후원자와 봉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교정사목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26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9월 4일(목) 제26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7명의 교육생과 함께하게 된 이번 교육의 첫날, 정민하 울리오 위원장 신부는 열린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9월 4일(목)부터 11월 13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10회기로 진행되는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으로 교육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현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9월 13일(토)~14일(일) 아현동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교정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이 시작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아현동 성당 신자분들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시절 아현동성당 신자분들께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어려운 수감자들을 도와주셨고, 후원회를 만들어 지금의 교정사목이 되었습니다.”라며, 뜻깊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아현동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 봉사로서의 소명

전향순 유스티나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봉사자

저는 평화방송(cpbc)에서 교정사목에 대한 홍보를 보고 봉사자 교육을 신청했고, 1년 후 직원의 연락을 받아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12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만난 어린 수용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무엇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런 곳에 왔을까, 이런 생각에 어른으로서 책임감과 연대감이 들었고, 미성숙한 행동에 약간의 냉소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생각하며 4년 1남 양육한 경험으로 제 삶의 마지막 봉사로서 소명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 남천 꽃말(전화위복), 포인세티아 꽃말(축복, 행복)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해로 자기 머리털을 잡아 뜯어 머리카락 2/3가 없는 수용자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돈보스코센터에서 원예치료 강사로 있을 때, 한 남자아이는 평소엔 마음이 몹시 불안한 데 웬지 원예 교실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감이 든다며, 저도 더 즐겁게 수용자와 더욱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아왔는데 조경사의 꿈이 생겼다고 무척 좋아하며 열심히 공부도 하겠다고 다짐한 수용자의 엄마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자렐로센터 원예 교실에서 만난 어여쁘고 명랑한 여자아이가 손을 바들바들 떨어서 깜짝 놀라 물어보니 어린 나이에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여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와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노력하여 육체적인 상처를 치유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수녀원에서 병원과 원예치료를 함께한 후 수용자는 손 떨림도 매우 호전되었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으며,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였습니다. 원예 수업도 열심히 하여 고급 자격증을 받고 퇴소하였습니다.

또 다른 수용자는 자격증을 받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서 자기도 기쁘다며,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시는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판사님에게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며 우울감, ADHD, 인내와 학습력 부재, 부모에 대한 원망과 어른에 대한 불신 등이 많았고, 결손가정과 사회적인 불안증이 수용자들의 공통점이며, 어린 나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연대감을 느끼고 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용시설과 정치권도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우한(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맞춤교육)이고 적극적인(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성) 관심과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는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양한 체험으로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의 취업 선택에 동기부여가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상처가 치유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일꾼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前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요한 2,5-9)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기적 이야기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이야기에 우리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일꾼을 잊곤 합니다.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두세 동이들의 물독 한 개의 용량은 90에서 135리터의 큰 물독이라고 합니다. 여섯 개가 놓여 있다고 하니깐 모두 합치면 적어도 500리터가 넘는 물독이었네요. 이 엄청난 양의 물의 양을 가득 채우는 일은 쉬운 일도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카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 수도시설도 없었을 테니, 우물에서 물을 퍼서 날랐겠죠.

일꾼들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자신 집주인도 아니고, 낯선 사람의 명령입니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첫 기적이었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가 낯선 사람이었듯이, 명령의 내용도 황당합니다. 당장 혼인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건만, 엉뚱하게도 물을 날라서 물독에 채우라고 합니다. 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 오라고 시키거나, 혹은 포도를 따던가, 아니면 다른 음료를 구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일꾼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면 뭐 시험 삼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면 혹은 쉬운 일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하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나르는 일이었기에, 많은 시간 동안 꾸준히 날라야 했을 것입니다. 힘도 들고, 의심도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논리가 옳다고 우겼으면 아마 계속 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힘과 체력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힘들고, 이유와 영문도 모른 채 꾸준히 행한 일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목격한 목격 증인이 됩니다. 과방장은 알지 못했지만, 일꾼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목격 증인만이 아닙니다. 기적의 조력자, 협조자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히 행하였기에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사목이 지향하는 바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만큼이나 사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형량을 살아가는 이들이 변화된다니,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회의 논리에 대해, 우리는 계속 다가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래, 단 한번 시험 삼아 해봅시다, 잠깐 뭐 이 정도 선에서만 해봅시다, 종교의 자유 그 정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통 칩시다,'라고들 말합니다. 교정사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힘과 체력이 소중해서, 혹은 재정적 여력이 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행하였습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라고 해서, 꾸준히 수용자들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함께 대화 나누며, 또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고 계신 교정사목의 봉사자분들, 후원회원님들이야말로, 일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몸소 하고 계시는 일꾼들,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동반하실 분이라 생각합니다.

봉사자분들, 후원회원님들과 더불어 교정시설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많은 형제자매님이 계십니다. 물과 같은 자신이, 진한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도와 선행을 꾸준히 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응원합니다.



힘든 시기에 희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장00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자

아직도 값아야 할 빚도 있고 어린 자녀와 노부모가 계신 저는 어느덧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쟁이로 버틸 상황이 아니라서, 저에게 스스로 채찍질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그를 바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일이 창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생활할 때 취·창업 교육을 별생각 없이 받았는데, 생각했던 거와 달리 커리큘럼도 좋았고 강사님들의 조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중 시청각 교육에서 청소업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출소 후에 좀 더 알아보고 학원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업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청소업은 말 그대로 우리 주변 어디에나 필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 학원 등 어느 곳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된다면 서로 동반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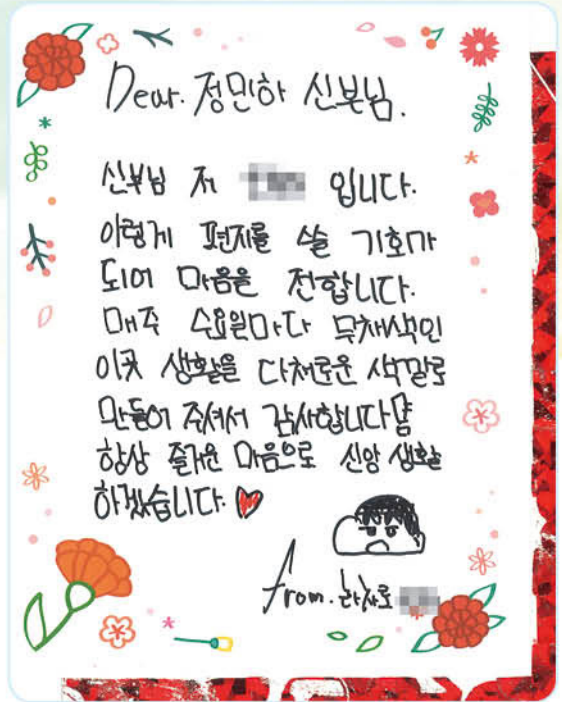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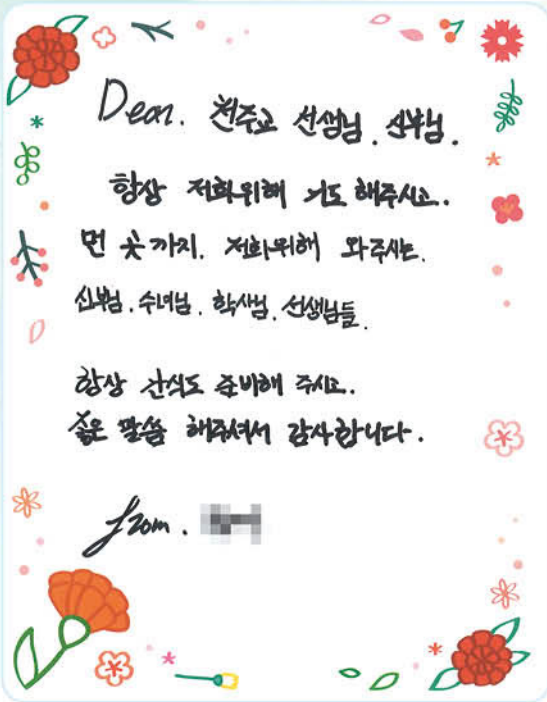
아이템 선정은 너무나 수월하고 믿음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자금 부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저는 그나마 다행으로 죄송스럽지만, 노부모에게 손을 벌렸고 가족들에게 도움으로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장비나 홈페이지 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감사하게도 기쁨과희망은행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기초 지식과 업무능력을 위해 전문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청소 업장에서 현장 일을 배웠습니다. 이후 영업으로 정기 청소업체와 계약, 현재 헬스장 6곳, 병원 1곳, 건물 1곳을 주 6일 청소하고 있으며 화재 현장과 기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혼자였고 일도 없었지만, 운이 좋게도 고정 수입업체가 생겨서 고정으로 5월부터는 월 매출 750만 원의 거래처가 있고 추가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고 모두 예방할 수 없겠지만 차분히 돈을 모아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며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서의 교육도 그렇고, 그 후 이렇게 창업 대출도 그렇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과 희망'입니다. 힘든 시기에 희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믿음은 없지만 성당에 나가보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저도 타인에게 '기쁨과 희망'이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노력하려 합니다.



※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중 청소년 수용자들이 작업한 편지입니다.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5년 11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 및 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자리에 후원회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 일시 :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 ▶ 장소 : 광탄 나자렛 묘원 ▶ 준비물 :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접수 : 10월 22일(수) 마감 ▶ 전화접수 : 02-921-5094 / 010-3732-5093 ★ 문자 접수 가능 ★
- ▶ 회비 : 1만원 (점심 제공) / 우리은행 1005-903-307477 (사)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행사 알림

- 9월 4일(목)~11월 13일(목) 2025년 제26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 센터
- 10월 1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월 13일(월)~17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 10월 15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10월 20일(월)~24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 10월 28일(화)~30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남사
- 10월 30일(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명동 대성당



★★10월 3일(금)~10일(금) 추석 연휴로 교정센터 사무실은 자리를 비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봉중고등학교 도서 기부 안내

고봉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살레시오회에 도서를 보내주시면, 정리 후 고봉중고등학교로 전달됩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택배 부탁드립니다.

- ▶ 도서 보내실 곳 : (07440)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70길 7, 살레시오 수도원
고봉중고등학교 담당자 앞 / 전화 : 02-831-3068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새 책 한정, 중고 책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8/16~9/15)

2025년 8월~9월에는 김정숙, 김정순 데레사, 정성순 율리아, 정인숙 막달레나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두희, 김한근 바로로, 안영선, 이우영 타대오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